

프란치스칸적 마음가짐으로 하는 대화

Carolyn D. Townes, OFS, National Animator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19 조)

지금 이렇게 정치적 혼란 과 인종적 격변의 어려운 시기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머리속에 자꾸만 떠 오를 때,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것이 답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꼭 동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사실 이지 당신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으로서 이해하기 위해 우선 듣고, 이해하고 나서 말을 해 야 한다. 특히 당신이 인종적 긴장, 정치적 의견차이 라는 문제를 다루는 어려운 대화 중일 때 당신은 복음서에 의거해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어려운 대화를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 동정심, 평화를 가지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하셨다.

대화 나 두개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에는, 우승자와 패자 가 있다. 우리는 공격하고, 다른 사람 주장의 약점을 찾아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발언이나 의견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겨냥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대화를 그런 식으로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흥분 중에 논쟁을 대화로 바꾸면 어떨까? 사려 깊은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려 깊은 대화를 할 때 원고적인 대화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바꾸어 호기심 과 공감을 가지고, 이기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욕구 가 생긴다. 비판적이 아닌,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가치관 과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위를 점하는 대상이 아닌 타인으로 보는 것이 된다.

나치 포로수용소 생존자였고 정신과 의사 인 Viktor Frankl 이 이런 말을 했다: "**자극 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속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엔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대화속에 어떻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사려 깊고 뜻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를 후퇴시키는 혹은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존중해서 말하거나 듣거나 할 때에는 신성하고 변혁적인 순간이 된다. 그것은 서로 올바른 관계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회에서 사려 깊은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연결을 구축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그 공간을 받아 호기심과 공감으로 채우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토픽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흥분해서 말한다, 특히 정치문제, 사회 정의 문제 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타인의 시각은 전혀 듣지 않고 막는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그런 열띤 토론들이 서로의 관계, 우정을 끊거나, 형제회에서 탈퇴하려는 갈등으로 변한다.

사려 깊은 대화를 하고 나면 당신의 추측과 편견이 틀릴 수도 있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회화가 없으면 당사자들은 짜증을 부리거나, 낙담하며 서로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관념, 관심사, 시각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라. 그리고 당신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당신의 자부심과 선입관을 버리면 당신은 엄청난 배움을 얻을 것이다. 또한 질문하여 호기심을 보여줘라. 질문들은 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참다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신이 기분 좋게 반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회화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거나 당신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하거나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참말을 하며, 참 듣기 경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정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다.